

우리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K-ESG 가이드라인'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2021. 1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12.1(수)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 행사를 개최하고, ESG 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과 함께 그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온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또한,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코트라 등과 함께 ESG 대응이 시급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한 ESG 지원협의회를 발족하였다.

[관계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

- 'ESG 인프라 확충 방안'(21.8월, 관계부처 합동)'의 중점 추진과제인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추진배경>

- 공시 의무 등 ESG 규율 강화, 기업 평가와 투자기준, 공급망 실사 등에 있어 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이 급증하는 상황임
- 한편, 국내외 600여개 이상의 평가지표가 존재하나, 평가기관의 평가기준과 결과도출 방식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어
- ESG 경영에 관심이 많은 기업도 어떻게 ESG 경영을 준비하고 평가에 대응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호소

<방향 / 구성>

- 국내외의 주요 13개 평가기관 등*의 3,000여개 이상의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하여 61개 ESG 이행과 평가의 핵심·공통사항을 마련하고,
 - * DJSI, MSCI, EcoVadis, Sustainalytics, WEF, GRI 등
-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주요 경제단체, 연기금, 금융·투자기관, 평가기관, 신용평가사·언론사 등 5차례 간담회 및 대한상의 포럼, 경총 ESG 위원회 등 참석



〈K-ESG 가이드라인 구성〉

구 분	주요 항목
정보공시 (5)	• ESG 정보공시 방식·주기·범위 등
환경 (17)	• 환경경영 목표 및 추진 체계, 친환경 인증, 환경 법규위반 등 •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오염물질 배출량, 재활용률 등
사회 (22)	• 사회책임경영 목표, 채용, 산업재해, 법규위반 등 • 채용·정규직, 산업안전, 다양성, 인권,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
지배구조 (17)	• 이사회 전문성, 이사회 구성, 주주권리 등 • 윤리경영, 감사기구, 지배구조 법규위반 등

- ☐ 또한, 국내 ESG 평가기관에서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
- 가이드라인이 기존 평가기관뿐 아니라 신생 평가기관에서도 널리 활용되어 평가시장의 투명하고 성숙한 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함

〈계 획〉

- ☐ 글로벌 동향을 반영한 K-ESG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1~2년 주기로 발간하고 업종별·기업 규모별 가이드라인도 22년부터 마련할 계획임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

- ☐ 환경 경영(E), 사회적 가치 창출(S), 지배구조 건전성 확보(G) 등 모범적인 ESG 경영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개최함
- 올해는 기업의 ESG 관심과 참여 증가에 따라 포상을 확대 수여('20년 19점 → '21년 25점)
- ☐ 대통령표창에는 '싱글랜 기술'을 통한 전력량·온실가스 저감, 책임경영 강화 등의 성과를 인정받은 SK텔레콤(주)과 국내 최초 1천억원 규모의 그린론 운영,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성과를 거둔 (주)하나금융지주가 수상
- 국무총리표창에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시, 100% 재생에너지 사용(슬로바키아 공장) 등의 성과를 인정받은 KIA(주)와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 협력사 기술·금융 지원 등의 공로로 OCI(주)가 수상

〈 포상 대상 기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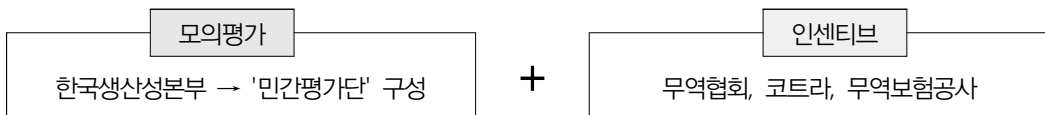
훈 격	분 야	수상 기업
대통령표창(2)	종합 ESG	•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국무총리표창(2)	종합 ESG	• KIA, OCI

산업부장관표창 (13)	종합 ESG	• KB금융지주, CJ제일제당, 해성디에스, 에어퍼스트, 휴온스글로벌,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E) 부문	• 신한금융그룹, 해양환경공단
	사회(S) 부문	• 일동제약, 한국국토정보공사
	지배구조(G) 부문	• 중소기업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기부장관표창 (8)	환경(E) 부문	• 청세, 부림산기, 토탈리빙, 지리산한지
	사회(S) 부문	• 한방유비스, 태림산업, 대성기계공업, 휴먼피아코스테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시범사업 추진 및 지원협의회 발족]

- 산업통상자원부는 점차 심화되어 가는 글로벌 대기업의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강화와 국가별 '공급망 실사제도' 확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ESG 시범사업을 추진함
 - * (EU)공급망실사제도('21.1월 입법권고안 채택), (독일)공급망실사법('23.1월 시행) 등
 - * (해외)전자 A社, 식품 N社, 가구 I社 → 납품기업 선정·관리 시 공급망 실사 활용
- 이를 위해, 산업부,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한국생산성본부로 구성된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협의회'를 발족함
 - * 무협 이관섭 부회장, 무보 이인호 사장, 코트라 유정열 사장, 생산성본부 안완기 회장 참석
- 5개 기관은 ESG 우수 수출기업 육성 통해 '무역 1조불 최단기 달성'의 뒤를 잇는 새로운 수출 동력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음
- '22년부터 민간평가단을 구성하여 희망 수출기업에 대해 평가 경험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기업에는 수출 관련 마케팅, 전시회, 수출보험 우대 등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

〈 지원협의회 구성 체계 〉



- 산업부는 산업 전반의 ESG 역량 확충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기업지원책을 계속해서 펼쳐 나갈 것임을 밝힘
 - ① K-ESG 경영지원플랫폼('21.12월) * 최신동향·모범사례, 자가진단 툴 등 순차적 제공
 - ② 업종별·규모별 가이드라인('22년~) * 중소기업형 가이드라인('22.上, 중기부 협업)
 - ③ 대·중소 ESG 협력네트워크 포럼('22년~) * E·S·G 각 분야의 대응 전략 등 공유
 - ④ ESG 교육·컨설팅 확대('22년~) * 온라인 교육 신설, 실무자 교육 강화 등



⑤ ESG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22년~) * 포상확대, R&D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 산업부 박진규 제1차관은 "ESG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진단하며,
-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도전을 지혜롭게 대응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구상중인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 하겠다"고 밝힘

붙임 1 - K-ESG 가이드라인 참고 사항

[가이드라인 취지]

- K-ESG 가이드라인은 국내 ESG 활성화 지원을 위한 첫 출발점으로,
 - 기업의 ESG 경영과 평가대응에 대한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판, 업종별·규모별 가이드라인 등 마련을 통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
- K-ESG 가이드라인은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의 평가지표를 분석하여 공통적인 핵심 요소에 전문가·기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제시
 - 따라서, 특정 평가기관의 평가지표, 세부 기준 등과 동일하지는 않음
- 기업과 평가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진단항목별 추가설명, 용어정리, 참고자료* 등 최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
 - * 참고자료 : 진단항목과 관련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출처를 제시 (비용이 발생하거나 비공개 등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출처는 제외)
 - 추후, K-ESG 경영지원플랫폼을 통해 우리 산업의 ESG 항목별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 → 점수로 제시한 점검기준의 활용성을 높일 예정
- 문항별 가중치는 업종별·규모별 가이드라인 마련 시 제시 방향 검토
 -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ESG 경영 방향과 주요 평가 요소를 우선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또한, 가중치는 업종별, 규모별 등 특성 차이로 일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자칫 기업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 K-ESG 가이드라인은 우리 기업에게 ESG 경영의 주요 핵심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자율적 ESG 경영확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ESG 평가 계획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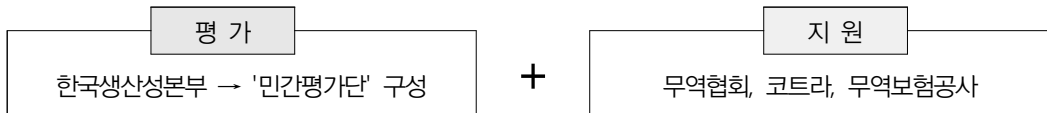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

구분	주요 항목		
정보공시 (5개 문항)	ESG 정보공시 방식	ESG 정보공시 주기	ESG 정보공시 범위
	ESG 핵심 이슈 및 KPI		ESG 정보공시 검증
환경 (17개 문항)	환경경영 목표 수립	환경경영 추진체계	원부자재 사용량
	재생 원부자재 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 Scope2)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용수 사용량	재사용 용수 비율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 비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환경 법/규제 위반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사회 (22개 문항)	목표 수립 및 공시	신규 채용	정규직 비율
	자발적 이직률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결사의 자유 보장	여성 구성원 비율	여성 급여 비율 (평균급여액 대비)
	장애인 고용률	안전보건 추진체계	산업재해율
	인권정책 수립	인권 리스크 평가	협력사 ESG 경영
	협력사 ESG 지원	협력사 ESG 협약사항	전략적 사회공헌
	구성원 봉사 참여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사회 법/규제 위반		
지배구조 (17개 문항)	이사회 내 ESG 안전 상정	사외이사 비율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이사회 성별 다양성	사외이사 전문성	전체 이사 출석률
	사내 이사 출석률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회 안전 처리
	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총회 집중일 이회 개최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배당정책 및 이행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내부 감사부서 설치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4개 영역, 총 61개 진단항목			



붙임 2 - 수출 중소기업 지원협의회

- (배경) 납품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규율 및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강화 추세 (환경·온실가스, 분쟁광물 원산지, 인권, 노동 분야 등)
 * (EU)공급망실사제도('21.1월 입법권고안 채택), (독일)공급망실사법('23.1월 시행)
 * (해외)전자 A社, 식품 N社, 가구 I社 → 납품기업 선정·관리 시 공급망 실사 활용
- (경과) 지원 방향 구상(9월) →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대책 반영*(10.27) → 실무협의회 개최**(11.18)
 * 수출기업 ESG 지원협의회 구성, 희망기업 시범평가, 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
 ** 산업부 산업정책과장, 무역·무보·코트라 실장급, 생산성본부 ESG연구소장·센터장 등
- (방향) ▲수출 중소기업 ESG 활성화 및 역량강화 지원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기업에 대한 평가경험 제공, 컨설팅, 금융마케팅 인센티브 등 체감도 높은 지원 추진
- 희망기업 대상 ESG 시범평가*(최대 200개社) → 중소기업 ESG 역량 확보 및 우수기업은 수출 관련 인센티브** 제공('22년 착수)
 * K-ESG가이드라인 및 중소기업형 가이드라인('22년) 적용 + 공급망 실사 주요사항
 ** 기존 수출유관기관의 지원 대상을 ESG 우수기업으로 확대(해외전시회·마케팅, 수출 컨설팅, 보증 및 보험 상품 한도 우대, 보증(보험)료 할인 등)
- (체계) 산업부, KPC, 수출 유관기관 중심으로 지원협의회 구성



기 관	예상 지원 인센티브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
한국생산성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형 가이드라인 연구 / 평가 참여 민간평가단 구성
코트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마케팅 행사, 글로벌 CSR사업 등 참가기업 선정 시 우대, 사업파트너 연결지원·서울국제식품전 등 유료 서비스 수수료 할인 등
무역보험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 지원 등 판로 개척 지원 수출보험 한도 우대, 보험료·보증료 할인 등
무역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상담회, 해외전시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우선권 부여 등

K-ESG 가이드라인 개요

I ESG 이해

1 ESG의 개념 및 논의

1. ESG의 개념 및 중요성

- (개념)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 경영 활동을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요소를 의미
 - *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지속가능발전법』2020.5.26. 제정)
- (환경: Environment)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 전반을 포괄하는 요소들이 포함되며,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
- (사회: Social)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의 요소가 포함되고, 최근 인권, 안전·보건 등에 대한 이슈가 화두
- (지배구조: Governance)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주주 및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영역으로 이사회, 다양성, 임원 급여, 윤리경영 및 감사기구 등이 강조
- (중요성) 최근 ESG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 투자자, 정부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
 - (기업목적 측면) ESG는 미래사회에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로 기업의 목적에 내재화 되어야 하는 필수적 요소
 - (자본조달 측면) ESG가 다양한 분야의 투자자들의 핵심 가치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기업의 자본조달 측면에서 ESG는 필수적 관리 요소
 - (지속가능 측면) 지속가능성의 포괄적인 개념 하에서 발전한 ESG 요소들은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필수적

2. ESG 논의의 확산과 발전

- (등장 배경) ESG의 개념을 포함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1987년 UNEP(유엔환경계획)와 WCED(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제시됨



- 보고서에서는 인류가 빈곤과 인구증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환경 파괴등의 위기에서 경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ESG 논의 확산) 지속가능성 논의 이후, ESG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고조되고, 연기금 등의 책임 투자 논의 활성화, 정부 단위의 ESG 제도화, 민간 분야의 적극적인 ESG 활성화 논의로 확대
 - (ESG 제도화) 국가 단위의 ESG 법안 마련 추진, ESG 관련 기업의 정보공개* 등의 제도화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 * UN PRI(Principle Responsible Investment, 책임투자원칙) 발표('06) 및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의 재무정보공개 권고안(기후변화 관련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을 발표('17)
 - (ESG 활성화) 민간 측면에서는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ESG 관점 투자 선언*을 통해 기업들이 ESG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협·단체 차원의 민간 이니셔티브**가 결성되어 ESG에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등 ESG 활성화 논의 확대
 - * 미국의 BRT(Business Roundtable)은 2019년 8월 연례회의에서 기업의 주주 우선 원칙을 폐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 가치가 통합된 새로운 '기업의 목적(Purpose of a Corporation)'을 선언
 - ** 산업 및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결성된 글로벌 민간 이니셔티브는 산업계가 공통으로 요구 받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개별 기업에게 ESG 성과 창출 및 리스크 관리를 요구(전자, 자동차, ICT, 화학, 섬유 등 산업에서 ESG 리스크 완화와 성과창출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운영 중)
- (ESG 경영 내재화) ESG가 기업의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면서 경영시스템 전반에서의 ESG 내재화를 위한 기업들의 대응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자문/컨설팅/평가하는 서비스 시장이 등장
 - 전 세계에 600여개 이상의 서비스 기관이 ESG 평가 및 자문역할 수행(Sustainability, 2018)

2 ESG 주요 동향

1. ESG 관련 국내외 동향

- ESG 이슈가 등장한 이후 전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제도적 규제강화와 투자(공적투자, 민간투자)기관의 ESG 정보공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기업들이 대응 노력도 확대되고 있음
 - (제도적 측면) '06년 UN PRI의 지속가능성장 관련 6대 원칙이 발표된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ESG 정보 공개에 대한 의무화, 공급망 실사 등 ESG 관련 규율 강화 추세
 - (투자 측면) 글로벌 연기금 기관들의 ESG를 내재화한 책임투자가 보편화되고, 자산운용사 및 신용평가사 등 민간 투자 기관들도 ESG를 기업의 미래가치로 인식하면서 기업 ESG

정보 공개 수요가 급증

- (민간 측면) 기업의 ESG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증가하고 평가가 확대되면서, 평가·컨설팅·자문을 수행하는 평가기관들이 급증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산업 단위의 협·단체 수준에서 이니셔티브를 출범하는 등, 자발적 대응 노력도 확대되는 추세

〈표 1〉 ESG 관련 주요 국내외 동향

구분		주요 동향
제도적 측면		• 기업의 ESG 정보공개 의무화, 협력사 등 공급망에 대한 실사 의무화 등 ESG 관련 규제 강화
투자	연기금	• 글로벌 연기금의 ESG 투자원칙에 따른 책임투자가 보편화
	자산운용사	• 글로벌 3대 자산운용사 등 주요 투자기관에서 ESG 요소를 반영한 투자 결정 및 의결권 행사를 이행
	신용평가사	• 글로벌 신용평가사에서 ESG 평가결과를 기업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평가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
민간	평가 기관	• 기업들의 ESG 대응과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 민간 차원의 평가기관이 급증하며, 특히 공급망 관련 ESG 평가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
	이니셔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UN을 중심으로 ESG 분야 원칙, 목표 등을 제시 • (민간) 전자,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로 산업 특성을 감안한 이니셔티브 조성하여 ESG 적극 대응 <p>* 환경, 책임경영 이니셔티브도 확대 추세</p>

2. ESG 규범화 주요 동향

- 2000년대 전후로 세계 주요국에서는 기업의 ESG 요소가 투자수익과 기업가치 및 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확대되면서 ESG 공시 등 규제강화 논의가 확대되었음
- 2006년 UN PRI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련 6대 원칙 등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공시 및 규율 강화가 추진되었음
- (EU) 2003년 회계현대화지침(EU Account Modernization Directive 2003/51/EC)에서 연차보고서 상 비재무적 요소(ESG)의 공시를 권고하며, 이후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2018년 의무화 함
 - * 2014년 EU 집행위원회 비재무 정보공개 지침(Directive 2014/95/EU) 제정
- EU 내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기업 연차보고서 내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발표*하였고, 최근에는 ESG 요소 중 공급망 실사에 대한 의무화 규제가 발표되고 있음
 - * (영국) 연차보고서 내 ESG 정보공개 의무화(Company Act, 2016), (프랑스, 독일)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보유 기업 ESG 정보공개 의무화(Code de commerce L&R, 2017, CSR Directive Implementation Act law, 2017)
- ** (EU) 산업 공급망 대상 인권 환경 실사 의무화 추진('21), (독일)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안 도입 발표('21)



- (미국) 미국은 과거부터 기업윤리 및 지배구조 중심의 제정 및 정보공시를 강화*해왔으며, 최근에는 환경 및 공급망 관리 등의 법령을 추진**하고 있음
 - * ('78) 정부윤리법 제정, ('99) 부패방지라운드 등 윤리 관련 법률 활성화
 - ** 분쟁광물 규제(도드-프랭크법, 2010), 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12), Business Supply Chain Transparency on Trafficking and Slavery Act('15)등
- (일본)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으로 기업들에게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며, 환경에 대한 기업 보고 관련 규제*를 추진하였음
 - * 온실가스/에너지('04, '06), 유해물질('11), 환경보고('12) 추진
- (중국) 중국은 국영 및 외자기업들의 CSR 수준 평가를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추진 중
 - * 국영기업 보고서 발간 권고('08), 기업 CSR 보고지침 개발('09)
- (한국) 2030년까지 단계별 ESG 정보공시 의무화 추진(상장기업)*하고 있으며, ESG 관련 규제법안** 등을 추진하고 있음
 - * 대형 상장사 기업 지배구조 핵심정보 의무공개('18)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단계적 의무화 추진('20) → 거래소 자율공시('21) → 일정규모 이상(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 ESG 정보공시 의무화('25) → 전 코스피 상장사 ESG 정보공시 의무화('30)
 - ** 탄소중립('20), 인권기본법('21), 공공조달('22) 등 관련 법안 추진 중

3. 책임투자 등 기관투자자의 ESG 동향(연기금)

- ESG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책임투자가 보편화됨에 따라 ESG 투자원칙이 수립되고 ESG 투자를 내재화하는 추세
 - (책임투자) '18년 2월 기준 글로벌 책임투자 규모는 30.7조 달러로 '16년 대비 34% 증가(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18)
 - (ESG 채권) 글로벌 ESG 채권 발행 금액 액은 총 5,220억 달러 규모로, '19년 발행량 대비 약 60% 증가(Bloomberg NEF, 2021)
- 글로벌 연기금, 자산운용사 중심의 책임투자가 증가하면서, 책임투자 촉진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가속화(19개 국가)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총 162개 기관(국민연금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함
 - *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기관 투자자들이 고객 및 수익자의 자산을 위탁 받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탁자가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책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지침
- 글로벌 연기금들은 각각의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책임투자를 실행함에 따라 기업들에게 평가에 필요한 ESG 정보공개를 요구
 - 투자 유형별로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ESG 통합투자 전략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급격하게 활용되는 전략은 지속 가능성 테마투자과 포지티브 스크리닝으로 나타남

<표 2> 글로벌 주요시장의 책임투자 유형의 추세

책임투자 유형	2016	2018	2020	증가율('16~'20)	연평균 증가
임팩트/지역사회 투자	248	444	352	42%	9%
포지티브/동종업계 우수기업 선정 스크리닝	818	1,842	1,384	69%	14%
지속가능성 테마 투자	276	1,018	1,948	605%	63%
규범기반 스크리닝	6,195	4,679	4,140	-33%	-10%
기업 관여 활동 및 주주행동	8,385	9,835	10,504	25%	6%
네거티브/투자배제 스크리닝	15,064	19,771	15,030	0%	0%
ESG 통합투자	10,353	17,544	25,195	143%	25%

4. 자산운용사 및 신용평가사 관련 ESG 동향

- (자산운용사) 글로벌 3대 자산운용사 BlackRock, The Vanguard Group (Vanguard), State Street Corporation(SSBT)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ESG 요소를 반영한 투자와 의결권 행사를 이행
 - (BlackRock) 거버넌스 구조, 중장기 ESG 목표, ESG 연계 KPI 설정, 기후변화 대응체계, 인적자원 관리 이슈에 대한 정보를 통해 적극적 의사 결정 참여 권고
 - (Vanguard)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산림, 수자원, 보건, 포용적 금융 등 테마투자를 운용하기 위해 기업의 ESG 정보 활용
- (신용평가) 글로벌 신용평가사(S&P, Moody's, Fitch)에서는 ESG 평가결과를 기업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추세
 - (S&P) ESG분야 12개 지표에 대한 대외공개 정보를 기반으로 1차 평가점수를 산정,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상적으로 판단한 추가 평가점수와 합산하여 종합 평가점수 도출
 - (Moody's) 2019년 1월, 23개 항목으로 구성된 ESG 지표를 활용하여 신용평가에 적용 (Moody's ESG & Climate risk website)
 - (Fitch Ratings) Fitch는 2019년 1월, ESG 통합점수 시스템을 발표하였으며, 전 세계 1,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ESG 자체 평가결과를 공개(ESG Relevance Scores for Corporates Report, 2019)

5. ESG 평가기관 동향

- 기업의 ESG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기금, 자산운용사, 신용평가사 등에 제공
 - 기업의 ESG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기금, 자산운용사, 신용평가사 등에 제공



- ESG 평가기관은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 수행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평가지표를 매년 최신화하고 있는 추세
 - 평가기관은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굴하여 ESG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방법들을 고도화하고 있음

〈표 3〉 글로벌 ESG 주요 평가 지표 수 및 신뢰성 확보 방안

평가기관	지표수	신뢰성 확보 방안
MSCI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st-Feedback 시스템 오픈(2020) • 기업별 등급/백분위 공시(2020)
Bloomberg	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산출 근거 확인 절차(2016) • 데이터 Quality-Control 강화(2019)
CDP	2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검증 시 가점 부여(2013)
S&P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데이터 대외공시 강화(2018) • 평가항목별 평가점 제공(2020)

- 공급망 관련 ESG 평가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Apple, BMW, VolksWagen 등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공급망) ESG 관리가 강화, 확대되면서 공급망 관련 ESG평가도 활성화
 - 국내기업 또한 협력사 대상 ESG 평가 도입 확산 추세
 - 일부 국내 신용평가사는 중소기업 ESG 평가를 위한 모델 개발 추진

6. 공공·민간 ESG 이니셔티브 동향

-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기업 및 자본시장의 ESG 확산 및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개별 이니셔티브는 정보공개 원칙, 지침, 지표, 방법론 등을 시장에 확산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UNGC) 조직의 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기초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조직이 준수해야 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제시
 - (UN SDGs)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이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필 수 있도록 17개 분야, 169개 세부 목표를 제시
 -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Apple, HP, Dell 등 전자제품 산업의 가치사슬(생산~소비)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등장하였으며, 최근 이니셔티브 가입 대상을 자동차, 항공, ICT 등의 산업으로 확장
 - (Drive Sustainability) BMW, Volvo, Daimler, Toyota 등 완성차 산업의 조달/생산/유통 단계에 잠재된 환경, 사회 이슈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완성차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사회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
 - (Plastic Economy, NaturALL Bottle Alliance)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과 재활용/생분해 플라스틱 개발을 위해 산업계 공동의 기술개발 및 연구활동을 진행

- (Renewable Energy 100, Science Based Targets)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배출량 관리 방법론을 개발 및 확산하는데 집중
- (GRI Standards, SASB Standards) 조 직이 공개해야 하 는 정보에 대 한 지침(Guidance)과 지표(Indicators)를 제시
- 산업별, 이슈별 이니셔티브는 조직의 자율적 참여 방식에서 강제적 규약 방식으로 성격이 전환되고 있으며, ESG 성과를 산업 내 또는 산업 간 거래조건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

3 국내 ESG 대응 현황

- (투자) 국내 ESG 투자는 글로벌 수준에 비해 현재 규모는 작으나,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펀드) 국내 ESG 펀드는 자금유입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규모 급증
 - * ESG액티브펀드 약 3배 ↑, 인덱스펀드 약 6배 ↑('17 대비 '20년 기준)(금융위원회 '21.2)
 - (채권) '20년 기준 국내 ESG 채권 상장종목은 약 549개(상장잔액 82.6조원)로 빠르게 성장(금융위원회, '21.2)
 - (연기금 및 금융기관) ESG 평가시스템 구축, 관련 상품 출시 등 ESG를 반영한 투자전략 추진 중
- (기업·단체) 주요 경제단체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를 대응
 - (기업일반) 주요 대기업 등은 ESG 관련 정책 및 목표를 선언하고, 계열사의 ESG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및 체계를 수립
 - (중견·중소기업) 중견·중소기업은 경영부담(인력, 비용)으로 인해 전반적인 ESG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에는 공급망 ESG 평가 확대로 점차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 (수출기업) 수출기업은 해외 바이어가 요구하는 특정 ESG 요건에 집중하여 대응 중이나 글로벌 원청기업의 ESG 준수요구 강화 추세
 - (경제단체 등) ESG 위원회 설립, ESG 관련 교육 및 포럼 개최 등 기업의 ESG 대응 지원
- (ESG 서비스) 민간 컨설팅·신용평가·언론사 등이 ESG 컨설팅 및 평가에 참여하면서 ESG 서비스 생태계 조성 중
 - 국내 컨설팅 기관 및 신용평가, 언론사 등은 각각 ESG 전담 부서를 신설 또는 확대하여 ESG 서비스 시장에 적극적 참여



II

K-ESG 가이드라인 개요

1 추진 배경

1. 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 증가

-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재무적 요소에서 비재무 요소인 ESG로 빠르게 변화
- 투자의 기준으로 ESG를 활용하는 금융·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기관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공급망 실사 등 협력사에 대한 ESG 준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ESG 공시에 대한 규범화 확대(EU, 영국 등)

2. 기업의 ESG 경영 추진과 평가대응 애로 증가

- 기업의 ESG 경영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과 정보 부족
 -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비용, 시간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ESG 경영 도입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국내·외 600여개 이상의 평가지표가 운영되고 있으나 개별 기업에서 각각의 평가기준, 평가방식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 또한, 글로벌 ESG 평가기관들은 기관마다 고유한 평가 프로세스, 지표, 측정산식 등을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일관된 평가 대응 체계를 수립하기가 쉽지 않음

2 구성 방향

1. 기업의 ESG 경영과 평가대응 방향 제시

- 기업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ESG 경영 요소와 평가기관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평가항목 제시를 위해,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지표와 공시기준 등*을 분석하여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61개 사항 마련
 - * DJSI, MSCI, EcoVadis, Sustainalytics,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eporting Initiative 등
- 주요 평가기관들이 사용하는 공시방법, 사용단위 등 항목별 평가기준 기반의 항목해설서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이해도 제고

2. 국내 상황을 고려한 ESG 요소 제시

- 각 분야별 전문가, 전문기관,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문항으로 구성
- 글로벌 기준 중심의 기본 진단항목, 글로벌 기준에서도 일부 사용 되고 있거나 국내 제도에 중요시하는 ESG 경영 요소를 추가 진단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
 - 기업의 ESG 추진 속도, 업종, 규모 등에 따라 글로벌 기준부터 국내 제도를 고려한 ESG 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
 - 주요 해외 ESG 평가지표에 대한 대응을 공통적으로 고려하되, 해외와 국내의 사회문화적·법제도적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여 설계
 - 국내 특성이 고려된 진단항목 개발 시, 해외 지표와의 연계성 해설을 통해 실제 경영환경에서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

3. 산업 전반의 ESG 수준 제고를 위한 범용적 가이드라인 제시

- (기업일반) ESG 경영 수준 향상을 위한 방향성 제시에 초점을 두고 기업 스스로 ESG 경영 목표 수립이 용이하도록 활용가이드 제시
 - 또한, 국내의 평가지표의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항목의 제시를 통해 평가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평가대응 역량 확보
-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전략 수립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우선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 선별 제시(27개 항목)
- (평가·검증기관) ESG 평가 시 K-ESG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평가·검증기관의 니즈를 고려하여 기본 진단항목 외 대체·추가 항목 제시

3 K-ESG 가이드라인 개발 경과

1. K-ESG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세스

(1단계) 글로벌 ESG 지표 정합성 검토

'19년 ~ '21년 상반기

- 글로벌 13개 ESG 평가제도 및 공시표준을 조사하여, 우리기업이 직면한 모든 ESG 진단항목체계를 설계(영역-범주)
 - * DJSI, MSCI, EcoVadis, Sustainalytics,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eporting Initiative 등 분석
- 도출된 ESG 진단항목 중 13개 평가제도 및 공시표준의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항목 선정 및 산정방식 비교·분석



(산출물) K-ESG 기본 진단항목정의서(영역, 범주, 항목, 진단기준)

(2단계) 국내 산업계 ESG 특수성 반영

'21년 상·하반기

- 산업계, 금융계, 연기금, 경제단체, NGO, 학계, 평가기관, 언론사 등과 간담회를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 진행
-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K-ESG 기본 진단항목정의서 고도화 과정을 진행함
(산출물) K-ESG 기본 진단항목정의서 수정/보완

(3단계) 국내 ESG 관련 법/제도 정합성 검토

'21년 하반기

- 국내 정책·제도와 정합성을 검토하여 K-ESG 기본 진단항목이 정책·제도와 상충되는지 최종 검토함
-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 정책·제도 등의 사항을 보완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지표 구성
(산출물) K-ESG 가이드라인